

부여의 歷史

崔 夢 龍

〈서울大學校教授·考古學〉

부여는 삼국 가운데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이전의 선사시대부터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류가 최초로 한반도에 살게 된 것은 아득히 먼 구석기시대부터이다. 1964년 바로 옆 고장인 공주 석장리에서 구석기시대 집자리와(방사성 탄소연대와 보정연대의 의하면 28,000년전임) 유물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B.C 3만년 이후부터 이 고장 근처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1975년에 발굴 조사된 이 고장 초촌면 송국리 선사 취락지에서 발견된 탄화미와 토기, 마제석기 등의 유물은 부여 지방이 이미 천년 이상 전부터 선사인의 주요한 생활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이 땅은 삼한 가운데 마한에 속하는 지역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부여는 이같은 마한 54개국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가 잘 아는 백제도 바로 이때쯤 나타나는데 기원후 2세기경 고구려와 부여족 계통의 유이민집단의 하나로 한강유역에서 대두하여 오늘날의 경기도 광주인 위례(하북 또는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제도 처음 마한 54국의 맹주인 목지국(주: 마한인이 세운 나라로 처음에는 안성과 직산에 있다가 백제가 강성함에 따라 익산 그리고 최후에는 나주 반남면 일대로 옮겨간 나라)과 공존하다가 마한지역을 점차로 병합하면서 발전하였다.

백제는 먼저 온조집단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정착한 같은 유이민계 부족들인 비류집단과 해루집단을 통합하여 연맹체를 형성하고 이어 선주민인 마한의 여러 소국 세력들을 정복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백제국의 기원과 연맹왕국으로의 성장과정은 확실치 않다. 다만 〈삼국사기〉 온조왕 본기에 실려 있는 백제시조 전설에 의하면 그 시조는 고구려의 건국자로 금와와 하백녀(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과 소서노(한때 우태 또는 구태의 부인이었음)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 온조(또는 우태의 장남이라고도 함)인데, 그는 후에 부여에서 주몽의 원자가 아버지를 찾아오자 형인 비류(우태의 차남 또는 동명왕인 주몽의 세째 아들이라고도 함)와 함께 남쪽으로 망명하여 한강유역인 하북위례성과 인천에서 각각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백제는 3세기 중엽인 고이왕대에 대외적으로 한군현에 대항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한다. 그러나 실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8년, 온조왕때부터 실질적인 국가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제13대 근초고왕대(346~374)에 이르면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지고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확립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마한을 병합하고 북으로 고구려와 격돌, 371년 평양전투에서 고국원왕을 전사시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시키고 대방군의 대부분을 점령하여 비옥한 서남부를 확보하고 끝이어 왜 및 동진(東晉)과 통교하였다. 그리고 아직기와 왕인을 일본에 보내 한문을 전수한 것도 큰 업적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는 서해 건너 요서와 산둥

지방으로의 진출을 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간의 삼국항쟁이 본격화 되면서 백제는 제21대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과의 전쟁에 패하여 한성을 빼앗기고 자신마저 전사하게 된다. 그의 아들인 제22대 분주왕은 475년(문주왕 원년) 10월에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웅진(공주)시대 5대 64년간에는 왕이 암살당하고 천재지변과 질병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국력이 침체된 시기였다. 공주시대의 왕 세대는 다음과 같다.

- 제22대 문주왕 475~476
- 제23대 삼근왕 477~478
- 제24대 동성왕 479~500
- 제25대 무녕왕 501~522
- 제26대 성왕 523~538(사비로 천도)

제26대 성왕 16년(538) 봄에 백제중흥의 용지를 품고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하여 사비시대가 시작되었다.

백제사(史)의 전개도 백제의 수도변천의 역사에 따라 한성시대(기원전 18~475), 웅진시대(475~538), 사비시대(538~660)로 구분되고 있다. 고대사회에 있어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곧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중심지의 이동이라고 할만큼 의미가 크다. 백제역시 천도 이후 각 시기마다의 특색있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사비천도가 가능하였던 것은 동성, 무녕왕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안정을 얻고 또 호남평야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국력강화를 꾀하려는 성왕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성왕은 천도후에 야기될지도 모를 지배세력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당시 이 고장의 토착세력이었던 사씨(沙氏) 세력과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사씨는 천도수행의 주요 배경세력이 됨으로써 훗날 8대 성씨에서 제1위를 점하였으며, 사씨가 주요세력이 된 것은 한성시대와는 달리 신진지방세력이 지배층으로 구성되는 신-구 지배세력의 세대교체라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사비천도, 즉 남부여시대의 개막은 부여가 백제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세에 둘러싸여진 웅진(공주)은 천연의 요새로 밀려오는 북의 고구려세력에 대항하기에는 적당했으나 지세가 가파르고 좁아서 한 나라의 수도로서는 적당하지 않았다. 반면에 부여는

백마강과 삼산(부여, 금성산과 오석산)에 둘러싸인 천연요새지인 동시에 넓은 벌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융성한 문화를 꽃피우기에 적당하였다.

부여의 옛 이름은 소부리 또는 사비라라고 하였다. 소부리의 어원을 캐보면 서벌이나 서라벌과 비슷한 뜻으로 지금의 '서울'이라는 뜻이다. 부리란 말은 '밝다', '붉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사비천도 이후 백제 조상들의 발상지 또는 그 부족의 이름을 따서 부여라 지명을 바꾼 것이다. 오늘날의 부여군은 당시 소부리와 대산홀(현 홍산), 가림홀(현 임천), 진악산(현 석성)등 네 곳에 해당한다. 이후 이곳은 백제 성왕 16년부터 백제의 멸망까지 성왕, 위덕왕, 혜왕, 법왕, 무왕, 의자왕의 6대 123년간 국력을 기르고 찬란한 예술문화의 꽃을 피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로 백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였다.

사비시대를 계기로 백제는 제도적인 면에서 왕권강화를 위해 웅진후기부터 개편하기 시작하였던 관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6좌평, 16관등제도도 이때 완비되었으며 22부의 중앙관서와 5부 5방의 지방제도도 이때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상적인 면에서는 불교교단을 정비하고 계율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사상통일을 기하였으니 백제 율종의 성립은 왕권강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양과 왜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으로부터는 새로운 문물을 흡수하였다. 왜에는 오경, 의학, 역학 등 여러 방면의 전문기술자를 보내 주었고 불교도 전파해 주어 왜의 고대문화인 아스카(飛鳥)문화를 일으키는 동인이 되었다.

최근 들어 이웃 나라 일본의 초, 중, 고교 수학여행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도 바로 '일본 역사의 원류'인 한국,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부여의 백제유적을 탐방함으로써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곳 부여의 관광정책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일이 되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정책 또한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코자 한다.



(사진)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보물 108호)

이 고장에서 백제의 중흥을 꾀하던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동맹을 맺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유역의 고지탈환에 성공하였으나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옥천)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이 전투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왕자 여창이 위덕왕에 즉위하였으나 백제는 성왕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위덕왕은 부왕을 위하여 출가, 불교를 닦고자 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이 가히 짐작이 간다. 위덕왕 때에는 신흥세력인 사씨, 연씨(燕氏) 등이 주축이 된 8대성 귀족세력이 크게 대두하여 왕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나 무왕때에 이르러 국력이 회복되었고 왕권도 전제화되어 갔다.

무왕은 전북 익산지방을 중시하여 그곳에 별도(別都)를 경영하고 장차 천도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음이 동방 최대규모인 미륵사의 창건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는 사비를 떠나 익산에 신도(新都)를 경영함으로써 귀족세력의 재편성을 꾀하려 한 듯하다. 백제의 마지막 군주가 된 의자왕은 바로 부왕 무(武)의 업적을 계승하여 주변지역으로의 국력확장을 꾀했다. 그는 영웅다운 담력과 결단성이 있었으나 신라에 대한 공격에만 열중하여 순간적인 승리의 기쁨에 취해 백제를 둘러싼 나-당간의 국제관계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국력 또한 지나치게 소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우기 왕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여 식음을 주는 등 왕권의 전제화에만 박차를 가한 결과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이 쌓이게 되었으며, 점차

귀족사회가 분열되어 멸망을 자초하였다.

사비성은 660년 7월 12일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때 의자왕은 태자 효와 웅진성으로 피하였고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싸웠으나 세째 아들 용이 항복함에 따라 태도 7월 18일 성문을 열고 항복하였고, 의자왕도 태자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와 항복하니 시조로부터 31왕 678년만(기원전 18~660)에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백제 전부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 다만 중앙정부가 무너진데 불과하였다. 사비성을 제외한 200여성의 유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항쟁하여 4년간의 부흥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에도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몇 백년이 지난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중앙 권력의 약화를 틈탄 백제의 후손 건훤이 의자왕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하기도 하였다. 이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은 그의 자손들을 깨우치는 <훈요십조>에서 '차령 이남의 사람을 등용치 말라'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바로 차령 이남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한 옛 백제인(후백제)의 충절과 기개를 염두에 두고 경계한 말로 받아들여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고장 부여는 성왕 이후 6대 123년간의 백제의 왕도로서 정치, 군사, 경제·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주변에 남아 있는 수많은 성곽을 보더라도 당시 백제에서 부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백제가 한창 번성하던 시대의 부여에는 13만호가 살고 있었고, 정림사를 비롯한 큰 절이 곳곳에 세워졌으며(寺塔甚多) 외국과의 문물교류 또한 빈번하였던 역사의 고장이다.

사비(부여)시대(538~660년)의 왕 세계

제26대 성 왕 523~554

제27대 위덕왕 554~598

제28대 혜 왕 598~599

제29대 법 왕 599~600

제30대 무 왕 600~641

제31대 의자왕 641~660

풍 왕 661~663(항쟁기간) ▲